

국회·정치권, 광주 군공항 이전 해결사로 나서나

강기정 “민관정, 올해 안 결론내야”
민주 양부남 시당위원장 역할 기대
대통령 민생토론회 적극 건의키로
姜, 김산 무안군수 복당 “환영할 일”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으로 통합 이전과 관련해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그동안 지자체 주도로 진행돼온 이전 추진에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무소속이었던 김산 무안군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면서, 정치권을 통해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사업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광주와 전남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힘에 부친 느낌도 있었다. 이제부터 국회에서 움직인다고 하니 반발적 뒤에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며 “민·관·정이 손을 잡으면 공항 이전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민을 대표하는 경제계와 여러 시민사회,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의 힘과 조국혁신당 등 정당, 광주시와 서구·광산구를 중심으로 민·관·정이 함께 올해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의 발언은 지난 15일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박군택 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연석회의’를 연 뒤 나온 것으로, 당시 양 위원장은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박지원 의원 등 전남 의원들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설득하기로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의원들도 공항 이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의미다.

강 시장은 “양 위원장이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들을 설득하고 광주지역 경제계·시민단체, 공항이 있는 서구와 광산구도 무안지역 설득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하반기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도 해당 사안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산 무안군수의 민주당 복당에 대해 강 시장은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라면서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 지역 관민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함께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 이전 확정과 관련해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다.

강 시장은 최근 김 지사가 발언한 △추석 전 2차 ‘3자(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



국가중요시설 테러대비 실제훈련 광주 서구청,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 육군6753부대 2대대, 한국전력 등이 20일 광주교통공사에서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드론 폭발물 테러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 대응 및 피해복구 훈련을 갖고 있다. 나건호 기자

군수) 회동’ △내년 6월까지 군 공항 예비 후보지 지정과 함께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으로 이전 확정 등에 대해 “지사께서 말씀하신 추석 전 3차 만남, 안되면 전남지사와 저의 2차 회동이라도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6월까지 이

전 확정 발인과 관련해서는 “전북 새만금 공항 착공에 속도가 붙은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광주 공항 이전과 무안 통합 공항 활성화를 올해가 데드라인,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 이전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

다. 각 지자체 지도자들의 결단과 그 결단에 기초한 시도민 대화·설득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광주·전남의 운명이 걸린 공항 도시를 만들지, 말지 결단의 문제인 만큼 내년 6월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 역대 고소득 어가 2510곳 ‘역대 최대’

해조류양식업·어선어업 호조
연소득 5천만원 이상 3259곳
5억 이상 300곳... 완도·고흥 순

해조류양식업과 어선어업 호조로 지난해 전남지역 고소득 어가가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

소득 어업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소득 5000만원 이상 고소득 어가는 3259곳으로 전년 대비 181곳 늘었으며, 1억원 이상 어가도 2510곳으로 0.4% 증가하며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구간별로 연소득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어가가 1349곳(53.8%)으로 가장 많았다.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어가는 861곳(34.3%), 5억원 이상 어가는 300곳

(11.9%)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전체 1만5816곳 어가 중 15.9%가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어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군별로는 완도가 633곳(2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흥 415곳(16.5%), 진도 376곳(14.9%), 해남 296곳(11.7%), 신안 294곳(11.7%), 영광 249곳(9.9%) 등의 순이다.

증가폭이 가장 큰 해남과 신안은 물길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보다 각각 18곳, 12곳 늘었다. 반면 감소폭이 가장 큰 완도와 영광은 전북 산지가격 하락, 굴비 판매량 감소로 각각 36곳, 34곳 줄었다.

업종별로는 해조류 양식어가가 668곳(26.6%)으로 가장 많았으며, 패류양식업 608곳(24.2%), 가공·유통업 474곳(18.8%), 어선어업 280곳(11.1%), 어류양식업 256곳(10.1%), 천일염 97곳(3.8%)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보다 해조류양식업과 어선어업은 각각 46곳, 43곳 증가한 반면, 패류양식업과 어류양식업은

113곳, 37곳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819곳(32.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33곳(29.2%), 40대 441곳(17.7%), 70대 320곳(12.7%), 30대 170곳(6.7%), 20대 27곳(1.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132개 사업에 2581억원을 들여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자동화 시설 확충, 가공·유통 기반시설 확충 등 어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